

# 고대 지중해 여성 납치 담론과 식민 활동\*

최혜영\*\*

1. 서언
2. 고대 지중해 식민의 정당화 담론
3. 여성 납치/실종 사건과 식민지 건설
4. 고전기 아테네에서의 실종/납치 여성 담론의 재생산
5. 결어

## 1. 서언

고대 지중해에서 방랑이나 이주, 식민 활동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를 대표하는 문학인 『오디세이아』나 『아이네이스』 등도 이와 연관된 이야기이다. 브래들리(Bradly)는 식민(colonization)과 이주(migration)은 고대 그리스인의 기원 및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근원적 이고도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보았다<sup>1)</sup>. 갈랜드(Garland)는 자발적이든 강

---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16-0151)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1) J.G. Bradley, *Greek and Roman Colonisation: Origins, Ideologies and Interactions*, eds. M. Wilson 외 (Swansea, 2006), xiii; 이 글의 서론 부분의 각주들은 최혜영, 「고전기 아테네의 식민 활동과 트립톨레모스」, 『서양고전학 연구』, 55-2 (2016), pp. 22-24 참고

제로든 이주, 갈등, 재 거주 등의 이동 생활은 그리스인의 일상생활이었다고 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한마디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의 문화(a civilization of displaced persons)’로 정의하였다<sup>2)</sup>. 고전기 이전의 이주 혹은 식민의 시기는 크게 두 차례로 본다. 1차 그리스 식민기는 대략 트로이아 전쟁 이후부터 기원전 9세기경까지 해당되고, 2차 그리스 식민 활동은 기원전 8세기경부터 시작되어 7세기에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750년에서 기원전 500년 사이 그리스 국가의 500개 정도가 이주 혹은 식민 활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그리스 전 폴리스의 1/3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정도의 규모라 할 수 있다<sup>3)</sup>. 물론 이는 그리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전 네트워크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리스인의 식민 활동은 그와 관련된 정당화 담론을 생성한다. 델포이 신탁의 권고, 혹은 혈연적 유대로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권한에 의한 연고지 주장 등이 그러하다. 또 여성의 납치 혹은 실종을 빌미로 하여 식민 혹은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여성 납치 담론이 식민 활동에서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두면서, 이가 확대 재생산 되는 과정이 식민 혹은 침략의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살펴보려 한다.

## 2. 고대 지중해 식민의 정당화 담론

고대 그리스의 이주나 식민 사례 다수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하나는 델포이 아폴론 신의 명령 혹은 권고에 의한 것, 다른 하나는 먼 조상의 혈연적 유대를 주장하면서 식민지 개척을

2) R. Garland, *Wandering Greeks: The Ancient Greek Diaspora from the Age of Homer to the Death of Alexander the Great* (Princeton, 2004), 결론 부분.

3) F. de Angelis, “Ancient Greek Colonization in the 21<sup>st</sup> Century: Some Suggested Directions”. *Bollettino di Archeologia* online I 2010/ Volume speciale C / C1 / 5(2010), 1.

정당화하는 것이다. 가끔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도 보인다.

먼저 델포이 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전형적인 유형의 창건자(오이키스테스, oikistes)가 델포이 신탁에 따라 새로운 곳에 식민지(아포이키아, apoikia)를 세우게 되고, 이 창건자는 도시의 영웅으로 숭배 의례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건국(크티시스, ktisis) 전통이라고 부른다<sup>4)</sup>. 이러한 전형적 패턴과 관련하여서, 이가 순수한 건국 이야기 자체라기보다는 후대에 정치적 목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sup>5)</sup>. 고대 식민지 건설에 典範처럼 등장하는 델포이 신탁의 역할과 관련하여, 말킨(Malkin)은 고대인들은 경계에 대한 원칙, 이를 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델포이 신전의 허락과 중재가 이를 완화시키고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풀이 한다<sup>6)</sup>. 나아가서, ‘신의 명령’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토착민 혹은 주변인들의 저항과 위협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비어있는 토지가 아닐 경우, 토착민들과의 반응, 충돌

4) 이러한 패턴은 많은 식민지 건설 이야기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서사구조이다. 즉 먼저 전형적인 유형의 오이키스테스, 혹은 아르케게테스가 있다. 이들은 왕, 제사장, 입법자,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창건자가 된다. 이들은 *theikos exegetes* (신적인 중재자, 해석가) 역할을 하는 델포이 아폴론 신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곳에 아포이키아를 세운다. 이들 지도자는 건국 영웅이 되어 숭배 의례의 대상이 되며, 이를 크티시스(*ktisis*, 건국) 전통이라고 부른다. Cf. J. P. Wilson, “‘Ideologies’ of Greek Colonization,” *Greek and Roman Colonization : Origins, Ideologies and Interactions*, eds. M. Wilson 외 (Swansea, 2006), p. 25. Malkin은 창건자가 제례를 통하여서 정치 종교적 공간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Polignac은 제례를 세우는 것을 외국 영토를 점유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 I. Malkin, *Religion and Colonisation in Ancient Greece* (Leiden, 1987), pp. 183-186; F. de. Polignac, *Cults, Territory and the Origins of the Greek City-State* (Chicago, 1995), pp. 98-102.

5) M. Sakellariou, *La migration grecque en Ionie* (Αθήνα, 1958/1990), pp. 133-149; J.M. Hall, *A History of the Archaic Greek World ca. 1200-479 BCE*. (London, 2007), pp. 43-49.

6) I. Malkin, *Religion and Colonization in Ancient Greece* (Leiden: 1987), Ch. I. Malkin은 ‘1 세대 학자’ 그레이엄(A.J. Graham)에 이어서 고대 지중해 이민-식민-네트워킹과 관련하여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 발표하고 있는 학자라 할 수 있다.

등을 예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라도 이주나 식민의 정당성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다.

또한 원래 자기의 조상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연고권을 주장함으로써 식민지 정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런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도리스 족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들어올 때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리스 족은 힐레이스(Hylleis), 팜필로이(Pamphyloi), 디마네스(Dymanes) 세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 헤라클레이다이(Heracleidae), 즉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 주장하면서, 자기 조상이 이미 예전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하였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이주와 침입을 정당화시켰다<sup>7)</sup>. 부케르트(Burkert)는 도리스 왕들이 펠로폰네소스 이주 및 점령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헤라클레스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꾸며내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마이어(Meyer)나 로버트슨(Robertson) 같은 학자들은 도리스 인들이 그리스로 이주해왔다는 것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중요한 점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후로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여러 국가에서는 왕위계승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헤라클레스의 혈통인가 아닌가가 관건이 될 정도로 이러한 전승은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sup>9)</sup>.

다른 예로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도 트로이아 유민이었던 아이네이아스가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하려 하였을 때, 그 조상이 원래 이탈리아 출신임이 강조된다.

7) eg. Homeros, *Ilias*, 2. 658-60; 2. 665-66; 기원후에 나타난 僞 아폴로도로스의 ‘힐로스가 조상의 땅을 찾아 나서기에 앞서 델포이 신탁을 물었다(Pseudo-Apollodoros, *Bibliotheca*, 2, 8, 2)’는 기록은 후대에 가면서 델포이 신탁과 조상연고권이 강하게 결합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8) W. Burkert, *Greek Religion* (Cambridge, 1985), p.211; E. Meyer, *Geschichte des Altertums* (Stuttgart, 1893), p. 73; N. Robertson, “The Dorian Migration and Corinthian Ritual,” *Classical Philology* 75-1 (1980), pp. 1-22.

9) Corneius Nepos, *Agessilaus*, 1.2; N.G.L. Hammond, “An Early Inscription at Argos,” *Classical Quarterly* 10, 1 (1960), pp. 33-36.

처음 너희 선조들 줄기에서 너희들을 낳아준 바로 그 나라가  
 돌아오는 너희들을 반갑게 품에 안아줄 것이다  
 너희들은 옛 어머니를 찾도록 하라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sup>10)</sup>

여기서도 조상 연고권과 관련한 수사법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sup>11)</sup>, 이러한 조상 연고권은 새로운 곳으로 정착할 때 내세웠던 고대의 한 보편적인 수사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아이네이아스 등 트로이아 유민의 조상이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살았던가하는 사실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다른 맥락에서의 연고권 주장도 있다. 기원전 7세기 후반 트로이아 인근 시게이온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테네와 레스보스 사이의 연고권 다툼이 그것이다. 당시 레스보스 인들은 그리스군 총대장 아가멤논의 손자가 세운 나라가 자기 나라라고 하면서 그 연고권을 내세웠던 반면<sup>12)</sup>, 아테네인들은 아테네 왕 메네스테오스가 트로이아 전장에서 열심히 싸웠음을 내세웠다. 결국 코린토스 참주 페리안드로스가 중재에 나서서, 트로이아 전쟁 당시 시게이온 근처 전투에서 공이 더 많은 나라가 이곳을 차지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아테네가 시게이온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전한다<sup>13)</sup>. 이러한 예들은 식민시를 세우는데 전통과 관행, 연고 등이 매우 중요

10) Vergilius, *Aen.* 3. 94.

11) 또한 ‘그 곳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이다. 그 곳에서 다르다누스와 아버지 이아시우스가 태어났고, 또 그에게서 우리 민족이 태어났다’ Vergilius, *Aen.* 3. 167

12) Cf. C.B. Rose,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in the Aiolian Migration,” *Hesperia* 77 (2008), p. 402.

13) Strabo, 13.1.39; Valerius Maximus, 6.5 ext. 1; Polyaeus, *Strategmata* 1.25.1; Schol. (vetus) in Aeschylus, *Eumenides* 398c; *Suda* s.v. Πιττάκος; Plutarchos, *Peri tis Herodotou kakotheias* 858 a, 860a. ; Herodotos. 5.94-95. Cf. Herodotos, 5.65.3, 5.91.2, 5.93-94.1; Thucydides, 6.59.4.

한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정당성 담보가 정착 과정을 보다 순조롭게 해줄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여성 납치/실종 사건과 식민지 건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전쟁 원인과 관련한 담론이 흔히 여성 납치 사건과 연관되어 전개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예를 들어서, 납치 혹은 실종되었던 여성 들인 이오, 에우로페, 헬레네, 메데이아(자진하여 납치된 경우) 등은 모두 갈등이나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 여성들과 연관이 깊은 나라들인 아르고스, 페니키아, 코린토스 등은 모두 해외 진출 및 활동이 유달리 강했던 나라였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여성 납치나 실종 관련 담론이 고대 지중해의 해상 및 식민 활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여성 납치 담론을 전쟁 발발과 직접 연관시켰던 이는 헤로도토스이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이 여성 납치극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술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갈등의 시작은 바로 여성 납치 사건인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페니키아인이 그리스 아르고스에 무역차 왔을 때, 공주 이오를 사로잡아 이집트로 출항해버린 일이 일어났고, 화가 난 그리스인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페를 납치하여 크레타 섬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이후 그리스인들은 또 흑해 연안 콜키스 공주 메데이아도 납치했다. 콜키스 왕이 딸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리스인들은 거절하였다. 이에 트로이아의 파리스 왕자가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스 미녀 헬레네를 납치하게 되었다. 그리스인들이 에우로페나 메데이아를 납치하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으니, 그도 그럴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인은 헬레네 때문에 대군을 일으켜 트로이아를 멸망시켰으므로, 이후로 오리엔트 인들은 그리스 인

들을 적대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같이 헤로도토스는 전쟁 원인을 여성 납치 사건과 연관지우고 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와 동방의 트로이아 혹은 페르시아 간에 벌어진 전쟁과 여성 납치의 상호관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여성 납치/실종 담론을 고전기 이전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식민 활동과 연관시키고, 또한 페르시아 전쟁 이후 새로운 해상 제국으로 등장한 아테네에 이러한 여성 납치 담론이 어떻게 계속 재생산되며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가하는 흔적을 찾아보려 한다.

## 1. 이오와 헬레네

이오와 헬레네는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지역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오는 아르고스의 공주였으며<sup>14)</sup>, 헬레네의 시숙이자 트로이아 전쟁의 그리스 총대장인 아가멤

14) 이오에 대한 다양한 전승이 있다. <http://www.theoi.com/Heroine/Io.html> 에 이오 관련 여러 사료가 소개되어 있다. 다양한 전승을 켜어서 후대에 정리된 신화는 다음과 같다. 이오의 아버지는 아르고스 왕 이나코스였는데, 그는 강의 신이었다고도 한다. 그런데 제우스가 이오를 사랑하게 되고, 헤라에게 들켜지 않으려 그녀를 흰 암소로 변신시켰다. 사정을 눈치 챈 헤라가 암소를 자기에게 달라고 조르자, 하는 수 없이 넘겨주게 되었다. 헤라는 아르고스라는 눈이 백개인 거인을 시켜 이오를 밤낮 감시하게 하였지만 죽자, 다시 쇠파리를 보내 이오를 괴롭혔다. 이오는 쇠파리를 피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여정 끝에 마침내 나일강 강가에서 아들 에파포스를 낳았다. 에파포스가 리비아를 낳았고, 리비아의 손자들이 아이집토스와 다나오스라고 한다. 이오는 에파포스 말고 케로에사라는 딸도 낳았다는 전승도 있다. 케로에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결혼하여 비자스란 아들을 낳았고, 비자스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기 이름을 띠도시, 즉 비잔티움을 세웠다는 전승이다. 하지만 비자스는 메가라 인이었다고도 한다. 여하튼 이오의 영향력은 이집트에서 비잔티움에 이르기까지 넓고 길게 미친 셈이 된다. 이오를 아르고스의 공주로 보기보다는 하늘의 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오는 아르고스 언어로 달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4세기경 마케도니아가 비잔티움을 공격하였을 때, 달빛이 마케도니아 군이 매복한 곳을 환히 밝혀주어 비잔티움이

논은 미케네, 즉 넓게 보았을 때 아르고스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이다<sup>15)</sup>.

앞에서 보았던 바대로, 헤로도토스는 이오가 페니키아인에게 납치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는 페르시아인의 주장이라고 한다. 이어서 그는 페니키아인의 주장도 짚막하게 전하는데, 페니키아 인들은 이오가 납치된 것이 아니라, 페니키아 선장과 몸을 섞어 임신하게 되자 부모를 대할 낯이 없어 자진해서 떠났다고 전한다. 여하튼지 간에 이오가 사라지자, 아르고스 왕 이나코스<sup>16)</sup>는 딸을 찾아오도록 사람들을 보내면서, 찾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왕명으로 이오를 찾아 나선 이들은 이오를 찾지 못하자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도시 타르소스는 이오를 찾아 헤매던 아르고스 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한다.

평지에 세워진 타르소스는, 이오를 찾아 트림톨레모스와 함께 헤매던 아르고스 인들에 의하여 세워졌다<sup>17)</sup>.

다른 한 사람이던 리르코스도 온 땅과 바다를 헤맸으나 이오를 찾지 못하자, 이나코스 왕이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았다<sup>18)</sup>. 키르노스라는 사람도 실패하자 역시 못 돌아가고, 소아시아

---

그들의 공격을 막았다는 전설은 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Suidas s.v. Io ; Euripides, *Phoen.*, 1123; Macrobius, *Sat.* 1. 19.

15) 호메로스에서 아가멤논은 미케나이와 섬들과 전 아르고스 통치자로 나오며(*Ilias*, 2. 108), 헤시오도스의 『여인 목록(fr. 195)』에서는 ‘넓은 영역의 아르고스를 통치하는 것’으로 나온다.

16) 僞 아폴로도로스는 이오의 아버지가 이아소스라는 설, 이나코스라는 설, 페이렌이라는 설 등을 다양하게 전한다. Pseudo-Apollodoros, *Bibliotheca* 2. 5 - 2. 9; Cf. Pausanias, 2. 16. 1. 이나코스는 이집트나 리비아에서 온 식민자로서 이나코스 해안가에 살던 펠라스고이를 통합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Schol. ad Eurip. Or.* 920, 932; Sophocl. ap. Dionys. l. c.

17) Strabo, 14. 5. 12



카리아에서 살게 되었다<sup>19)</sup>. 즉 소아시아의 카리아, 타르소스 등의 나라들은 모두 고대 아르고스 인이 세운 도시, 식민지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스탄불의 옛 이름 비잔티온, 비잔티움도 이오의 외손자 비자스가 세웠다는 전승도 있다<sup>20)</sup>.

또한 헬레네가 원인이 된 트로이아 전쟁은 그리스 측의 소아시아 원정 및 약탈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대규모의 이민 혹은 식민 활동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서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지중해와 소아시아에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는 트로이아 유민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새로운 식민지를 세우는 이야기이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시칠리아 원정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앞서서, 시칠리아 섬의 식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리온이 함락되었을 때 트로이아 사람들 일부가 아카이아 사람(미케네와 그 연합군)들을 피해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와서 시카니아 사람들과 이웃하여 살았다. 그들은 ‘엘리모이’라 불렸으며, 그들이 세운 도시는 ‘에릭스’와 ‘에게스타’로 불렸다. (소아시아의) 포키스 사람들 중 약간도 이들과 같이 식민지를 세웠는데, 이들은 트로이아 전쟁에서 돌아오다 겨울폭풍으로 먼저 리비아로 떠내려갔다가 시칠리아로 넘어왔다.

이오가 살았던 아르고스나, 아가멤논 왕이 통치하던 미케네는 호메로스 시기 그리스 세계를 대표하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 『일리아스』의 함선표에서 아르고스나 아가멤논 왕은 가장 많은 배를 제공한 나라들에 속한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아르고스의 왕가나 아가멤논의 혈통이 이집트, 소아시아, 페르시아 등의 지중해 여기저기 자리 잡은 여러 나라와 깊은 연관을

18) Parthenius, *Erotika Pathemata*, 1

19) Diodoros Sikeliotis, *bibliotheca*, 5. 60. 4.

20) 각주 14 참조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제우스에 의해 임신하여,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이집트로 갔던 이오는 에파포스를 낳고 이집트의 시조여신이 되었다는 전승을 낳는다<sup>21)</sup>. 이오의 후손 다나오스는 이집트를 떠나 그리스 아르고스로 와서 다나오스 왕조를 세웠다고 전해졌다. 다나오스와 다나오스의 딸들은 자신의 조상이 아르고스 출신 이오라는 연고권을 내세우면서 온 것이다. 다나오스의 증손자 프로이트스는 정쟁에서 밀리자 소아시아 리키아로 가서 리키아 왕의 사위가 된 다음, 리키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인근 티린스의 왕이 되었다. 또 다나오스의 고손자 페르세우스는 이디오피아 공주 안드로메다와 결혼하여 페르시아의 선조가 되는 페르세스를 낳았다고 전한다. 후일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 아르고스에 사절단을 보내어서 ‘페르시아와 아르고스는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르고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실제로 아르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인들의 미움을 샀다고 전한다<sup>22)</sup>. 마지막으로 아가멤논 가문 역시 소아시아 출신 펠롭스의 후손으로 알려졌다.

이상의 신화적 사실들은 아르고스나 미케네가 단일한 종족 국가가 아니라, 여러 인종이나 민족이 섞여서 살았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실제로 아르고스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한 할(Hall)은 아르고스가 그리스 안의 대표적인 다민족, 다인종국가라고 말한바 있다<sup>23)</sup>. 이는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류와 접촉, 팽창의 결과로 추정되는데, 이가 이오나 헬레네 납치 이야기를 낳았던 한 배경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여자를 빼앗겼으니 이를 찾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그들의 활발한 해상활동, 다른 지역에 대

21) Cf. Herodotos, 2. 41. 1; Callimachos, *Epigr.* 58 ‘Pausanias, 2. 16. 1. 이에 대해서 이집트인은 이를 잘못 된 전승이라 반박하였다고 전한다. Aelianus, *De Natura Animalium*, 11. 10.

22) Herodotos, 7. 152.

23) J.M Hall, *Ethnic Identity in Greek Antiquity* (Cambridge, 2000), p. 67.

한 침입, 이주, 식민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의 일종이었던 셈이다.

## 2. 에우로페

이는 에우로페가 살았다는 페니키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페가 납치되어 사라지자, 페니키아 왕 역시 에우로페를 찾아오라고 왕비와 왕자들을 다 내어보냈다고 전한다. 이오를 빼앗긴 아르고스 왕과 똑 같은 명령을 내린 셈이다. 결국 에우로페를 찾지 못한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였다. 헤로도토스는, 페니키아 왕자 카드모스가 어머니와 함께 에우로페를 찾아 헤매다가 그리스에 와서 테베를 세우고, 그들에게 문자와 문화를 가르쳐주었다고 전한다<sup>24)</sup>. 또 다른 왕자 타소스는 트라케 지방의 한 그리스 섬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섬이 오늘날 타소스 섬으로, 이 때 왔던 페니키아 왕자 타소스 이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이는 카드모스와 타소스의 누이였던 에우로페의 이름이 오늘날 유럽의 어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오를 찾아 나섰던 아르고스와 에우로페를 찾아 나섰던 페니키아가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해상활동을 하던 나라였다는 것은 흥미롭다. 특히 페니키아의 식민지 개척은 아주 두드러진 사실인데, 페니키아의 왕성한 해상활동은 원료 획득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누이 에우로페를 찾아 나섰다가 테베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왕자 카드모스는 그리스에서 처음 금을 캐내었다고 전한다. 카드모스는 광산의 기술을 그리스에 가져다준 이로서 마케도니아 판가이온 산에서 처음으로 금과 은을 제련해내었다는 것이다. 카드모스의 형제 왕자 타소스 역시 금광 개척과 특히 관련이 깊은 듯하다. 타소스 섬은 금광으로 특히 유명하였던 곳이었는데, 헤로도토스는 이곳의 금광에 대해서 특기하면서, 페니키아인이 개발한 광산은 사모트라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직접 가보

24) Herodotos, 5. 58; cf. Diodoros Sikeliotis, 5. 48; 5. 57; 5. 58. 카드모스에 관련한 내용이 헤로도토스와 디오도로스 역사책 모두에서 5. 58로 편집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았다고 전한다<sup>25)</sup>.

이러한 사실은 페니키아의 왕성한 식민 활동이 은이나 금속과 같은 원료 획득 및 중계 무역 때문이었다고 분석한 역사가 디오도로스의 말과도 통한다. 디오도로스는 ‘이베리아에는 질이 좋은 은광이 많았는데, 토착민들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페니키아인들은 이곳의 은을 다른 물품과 교환하여, 아시아와 그리스에 많은 돈을 남기고 팔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부유하게 된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전역에 많은 식민시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sup>26)</sup>. 타소스의 금이나 이베리아의 은 외에도 구리나 주석 등도 해외 무역이나 식민시 건설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즉 페니키아가 그리스의 타소스 뿐만 아니라, 키프로스, 카르타고, 이베리아 반도 등 지중해 전역에 수많은 식민시를 건설한 것은 상업 활동 및 금속 물자의 획득과 관련이 깊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최고 수준의 선박을 자랑하면서 상업 활동에 나섰던 페니키아인들이 이윤이 큰 광산 자원 지역이나 상업 활동에 유리한 거점 등에 눈독을 들이고 일찍부터 진출하였을 것은 당연하였을 터인데, 그 진출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에우로페로 상징되는 여성 납치 사건을 역시 내세웠던 것은 아닌가 한다.

25) Herodotos, 6. 47. 페니키아인들이 식민시를 건설한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먼저 이가 기원전 12세기경부터 시작되었으며(가디르 혹은 카디즈 기원전 1110년, 기원전 우티카 1101년 등), 기원전 8세기경의 그리스보다 많이 앞서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 의견이 있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부터는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페니키아의 식민 활동은 그리스의 식민 활동과 비슷한 시기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늦게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나타났다. 다시 오늘날은 전통적인 견해에 보다 가깝게, 즉 기원전 8세기경부터 확실히 식민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기원전 650년 경 파로스 인이 중심이 된 식민단이 타소스에 식민시를 건설하였던 것도 페니키아인 다음의 일이었을 것이다. Cf. A.J. Graham, “The Foundation of Thasos,” *The Annual of the British School at Athens* 73 (1978), pp. 61-98.

26) *The Phoenicians*, ed. S. Moscati (NY, 1999), pp. 47-48에서 재인용.

### 3. 메데이아

흑해 연안 콜키스 공주 메데이아 역시 식민지 건설 및 팽창과 관련이 없지 않는 듯하다<sup>27)</sup>.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해당되는 흑해 연안의 콜키스로 그리스인들이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부터가 그리스인들의 지리적 세계의 확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거니와, 콜키스의 황금 양털 및 메데이아를 데리고 돌아왔던 아르고 호 원정 이야기 자체가 여러 식민지 건설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 시인 핀다로스는 아르고 호가 원정 가운데 테라 섬에 도착하였을 때 메데이아가 동승한 에우페모스에게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그의 후손이 리비아에 키레네라는 새로운 식민지를 세우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sup>28)</sup>. 키지코스 식민지 역시 아르고호 원정에 동승하였던 테살리아의 펠라스고이가 세웠다고 전한다.

무엇보다도, 콜키스라는 나라 자체가 코린토스 출신이었던 메데이아의 아버지가 식민지로서 세웠던 나라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에서는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버리고 코린토스의 공주와 결혼하여 코린토스 왕위를 구걸하려고, 메데이아는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에 의해 추방령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오지만<sup>29)</sup>, 메데이아가 원래 코린토스

27) 메데이아는 납치당하였다기 보다 적극적으로 이아손을 도와서 고국을 배반하고 떠난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앞선 여러 여성들도 여러 버전이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이오의 경우도 납치당했다는 설, 자진해서 따라갔다는 설 등이 있었고, 헬레네의 경우도 자진하여서 따라갔다는 설에서, 납치당하였다는 설, 심지어 그녀의 환영만 트로이아에 갔고 실제의 그녀는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는 설 등 아주 다양하게 있다.

28) Pindaros, *Pythia*, 4, 50 ff. Cf. Apollonios Rhodios, *Argonautica*, 4. 1551-1562; 1731-1764; Herodotos, 4. 157. 에우페모스는 아르고호 원정대가 항해 중 들렀던 리비아 호수 트리토니스에서 포세이돈 신의 아들로부터, 그가 이 흠덩이를 고향인 펠로폰네소스 타에나룸에 무사히 가지고 간다면, 그의 4대째 후손이 리비아를 정복하게 되리라는 예언과 함께, 흠 한덩이를 선물로 받는다. 하지만 그는 이 흠덩이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원정대가 테라 섬에 닿았을 때 조류에 밀려 이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의 정통 왕위 계승권자였다는 신화도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즉 메데이아의 아버지는 원래 코린토스의 왕이었는데, 다른 이에게 왕위를 주고 콜키스로 이주해갔다. 그런데 코린토스에서 왕위 계승자가 끊어지자, 왕위 승계법에 따라 코린토스 인들이 메데이아에게 왕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메데이아와 남편 이아손이 왕위에 올라, 이아손이 메데이아와 이혼하기까지 십년 동안 코린토스를 다스렸다는 것이다<sup>30)</sup>.

메데이아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코린토스는 ‘두 바다의 도시’라는 별칭이 있었다. 서쪽 및 마그나 그레키아를 잇는 레카이온 항구와 키프로스, 이오니아와 레반트를 잇는 겐그레아 두 개의 항구를 가진 지리적 이점을 가졌던 코린토스는 해륙 양면으로 무역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호메로스나 핀다로스 등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은 코린토스의 부유함을 특기하며<sup>31)</sup>,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그리스에서 삼단노선을 최초로 제조하고 해군을 조직한 곳, 최초로 해전을 벌인 나라가 코린토스였다고 한다<sup>32)</sup>.

‘두 바다의 도시’ 코린토스는 일찍부터 해외 진출에 앞장서, 상고기부터 킵셀로스와 페리안드로스 참주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식민지들을 세웠다. 먼저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가 기원전 7세기 초 세워졌고<sup>33)</sup>. 비슷한 시기에 후일 母市 코린토스와 많은 갈등을 빚게 되었던 케르키라가 세워졌다. 이어서 레우카, 암브라키아와 아낙토리오가 세워지고, 발칸 반도 쪽의 일리리아 지역에는 아폴로니아가 세워졌다. 코린토스 인들은 기원전 7세기말까지는 에게 해 북쪽 할키디케 반도까지 진출하여 포테이다리아를

29) 이는 에우리피데스가 그려낸 메데이아일 뿐, 실제로는 다양한 메데이아 전승이 전해온다. 메데이아가 자기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전승도 있는데, 이를 반영하는 듯한 도기 자료도 있다. Eg. L. Giuliani & G.W. Most, “Medea in Eleusis,” *Visualizing the Tragic: Drama, Myth and Ritual in Greek art and Literature*, ed. C. Kraus et al. (Oxford, 2007), pp. 197-217.

30) 기원전 8세기 Eumelos의 말을 인용. Paus. 2.3.10.

31) Homeros, *Ilias*, 2. 570; Pindaros, *Ol.* 13.4.

32) Thucydides, 1.13.2.

33) Cf. Thucydides, 6.3.

세우기에 이르렀다<sup>34)</sup>. 즉 흑해 연안의 콜키스 공주 메데이아와 그리스의 코린토스가 연관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닌 것이며, 메데이아 사건 역시 고대 지중해를 배경으로 한 해상 활동 및 식민 활동이 그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 4. 고전기 아테네에서의 실종/납치 여성 담론의 재생산

이상에서, 고대 지중해에서 해외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실종된 공주를 찾아오라는 왕명에 의하여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결국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전승을 살펴보았다. 왜 고대 지중해 인들은 이주 혹은 식민 개척과 관련하여서 여성 납치나 실종 사건을 구실로 앞세웠을 것일까? 이것이 해외 진출에 대한 정당성 담보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갈등과도 연계된 결과인지, 그 외 담겨있을 여러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확정짓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여성 담론이 중요한 수사적 매개체로 후대에까지 전해졌던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수사가 기원전 5세기 제국주의적 경향을 날로 띠어가던 아테네에서, 또 4세기 이소크라테스의 글에서도 그대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먼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인들은 이오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어, 이오 자신이 그리스 인들을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해석한다. 아테네에서 상연된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와 소포클레스의 『탄원하는 여인들』에서 이오 이야기는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며, 이 비극들 모두에서 특이하게도 이오의 여정이 장황하리만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sup>35)</sup>. 이런 맥락에서 이오의 이름과 연관된 지명이 지중해 지역

34) 母市가 된 코린토스만 식민지 건설에 앞장섰던 것이 아니라, 코린토스의 식민지들이 다시 식민 활동에 나섰는데, 시라쿠사가 헬로루스(700년), 카마니라(에우세비오스는 기원전 601년,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97년 직전 설), 카스메나이(기원전 600년 직전 설과, 기원전 642년 설)를 세웠으며, 케르키라는 기원전 627년경 에피담노스를 건설하였다.

에 많이 흠어져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리스 서쪽의 바다인 이오니아 해라든가, 이스탄불 앞바다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 아테네 앞의 에우보이아(에비아) 섬 등은 모두 그리스 아르고스의 공주 이오와 관련된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sup>35)</sup>.

이 비극이 상연되던 고전기의 아테네의 해외 진출은 지중해 세계 전역에 걸쳐서 가장 두드러진 바 있었다. 이전에는 그야말로 미미하던 아테네의 해외 진출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기원전 478년에서 기원전 404년 사이 이루어진 약 72개 정도의 식민 사례 가운데, 아테네가 30개 정도, 즉 거의 절반 가까운 사례를 보일 정도로 가장 왕성한 식민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출한 지역도 트라키아 북쪽 해변의 암피폴리스에서 이탈리아 남쪽 투리이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아테네가 느닷없이 이오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이다. 이오는 아테네 출신이 아니라 아르고스의 공주였지만, 이 극이 상연되던 당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거의 지중해 전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팽창해가면서, 오리엔트 세력에 맞선 헬라스 세계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었으므로, 이오를 전 헬라스를 대변하는 여성의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데이노메네스가 만든 이오 상이 서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되는 듯하다<sup>37)</sup>.

그런 맥락에서 아테네 비극에서 묘사된 바의, 이오가 이리저리 다닌 행적 자체가 그리스 자손을 위한 식민지 개척의 선구적 역할을 상징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이오의 여정을 설명한 다음, ‘이오가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서 떠나면

35) Aesch. *Prom.* 705 ff.

36) 이오니아 해는 이오의 바다라는 뜻이라는 전승도 있다. 보스포루스 해협은 역시 ‘소의 여울’이라는 뜻으로, 암소로 변한 이오가 헤엄쳐서 건너간 해협이라는 뜻이며(물론 다른 설도 있다), 아테네 동쪽에 있는 섬 에비아는 ‘좋은 소의 땅’이라는 뜻으로 암소가 된 이오가 머물렀던 곳이라 전한다. Cf. Hesiodos, *Fr.* 4 ; Strabo, 10. 1. 3; Callimachus, *Artemis*, 24

37) Pausanias, 1. 25. 1



식민지를 세우도록(τὴν μακρὰν ἀποικίαν, Ἰοῦ, πέπραται σοὶ τε καὶ τέκνοις κτίσαι) 정해져 있다<sup>38)</sup>’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동맹국들을 이끌고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원정을 감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극이 상연될 무렵에는 또 이집트 원정에 한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39)</sup>.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에 가서 아들을 낳아 이집트 왕가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오 이야기를 꼬집어냄으로써 그리스의 정복 활동을 더욱 정당화하려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한다. 즉 그리스 출신 이오가 이집트의 시조모, 즉 이시스 여신이 되었다니, 이집트 자체가 그리스의 ‘식민지(ἀποικία)’였던 것이 되는 셈이다. 이는 이오라는 여인을 통한 연고권 주장에 가깝다. 그런데 아테네가 그려낸 이오는 종전의 납치당한 가련한 여성이라기보다, 더욱 적극적인 식민지 개척의 매개체 및 상징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기원전 4세기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오리엔트 원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헬레네 이야기를 다시 꼬집어낸다. 그는 『전 아테네인 축전에 부쳐 (Panathenaikos)』에서 트로이아 전쟁이, 말로는(λόγῳ) 헬레네를 위해서지만, 실제로는(ἔργῳ) 헬라스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난 것이라 말한다. 트로이아 전쟁은 헬레네가 다시는 그런 이방인들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리스 다른 여러 지역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침략 당하였던 바와 같은 침략의 고통을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었다<sup>40)</sup>.

그러면서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납치하였던 이들을 철저히 응징한 트로이아 전쟁을 극찬한다. 트로이아 전쟁은 말로는(λόγῳ) 하나의 나라(즉 트로이아)에 대항한 것이지만, 실제로는(ἔργῳ) 아시아에 두루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의 여러 종족들에 맞서 싸우면서, 감히 잘못을

38) Aesch. *Prom.* 814-815.

39) 최혜영, 『아이스킬로스, <탄원하는 여인들>의 저술 시기』, 『서양고대사연구』 32(2012), 109-134쪽.

40) Isocrates, *Panathenaikos* 80 (12. 80)

저지른 자의 나라를 (τὴν πόλιν τοῦ τολμήσαντος; 즉 감히 헬라스 여인을 납치한 일을 감행한 파리스의 나라) 굴복시켜 그 나라 사람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고, 이방인들의 오만함 (τοὺς βαρβάρους ὑβρίζοντας)을 끝장내기 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고향을 향해 떠나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sup>41)</sup>.

이소크라테스는 트로이아 원정을 이끌었던 아가멤논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아가멤논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였던 것을 더욱 칭찬한다<sup>42)</sup>. 이소크라테스는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간 것을 명백한 이방인의 침략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아가멤논이 이끌었던 트로이아 원정이라 말로 역사를 통 털어서 가장 좋고(κάλλιον), 헬라스 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ὠφέλιμώτερον)의 모범이었다고 말한다<sup>43)</sup>.

이는 여성이 납치당하였다는 전형적인 수사를 내세운 웅징, 군사적 원정, 식민지 건설 담론이 기원전 4세기에도 여전히,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소크라테스가 이 글의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오리엔트를 원정하자고 그리스인들에게 호소, 촉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소크라테스는 아주 넓고 풍요로운 나라를 식민지(ἀποικία)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원정을 떠나 이방인들과 싸우자고 촉구한다. 그리스인들끼리 싸우는 지금의 미친 짓을 멈추고 이방인들이 사는 오리엔트 원정에 나선다면 큰 힘을 들이거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이 지역을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빈곤한 그리스 인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1) Isocrates, *Panathenaikos* 83 (12. 83)

42) Isocrates, *Panathenaikos* 80 (12. 80); 아가멤논은 말로 표현되는 모든 덕을, 월등하게 갖추었으며,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고 위대하며, 그리스인들에 유익하며,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한 지도자라고 극찬된다. 그러면서 아가멤논에 대한 칭찬을 계속된다. Isocrates, *Panathenaikos* 73; 76 ff. (12. 73; 12. 76 ff.)

43) Isocrates, *Panathenaikos* 78 (12. 78)

따라서 이 일보다 더 좋거나(καλλίους), 중요하거나(μειζους), 유익한(συμφερούσας)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sup>44)</sup>. 그런 전제를 깔고 난 다음, 글의 흐름이 무르익었을 때, 이미 예전에 일어났던 그리스인의 단합된 원정, 오리엔트 정복-식민화의 예로 헬레네 이야기 및 트로이아 전쟁을 끄집어내었던 것이다.

이소크라테스가 『전 아테네인 축전에 부쳐』 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쓴 『헬레네(Helene)』에서도 그리스인들이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싸웠던 전쟁의 중요성을 말한다<sup>45)</sup>. 예거(W. Jaeger)는 이와 관련하여 ‘헬레네가 이방인들에 대항하는 그리스 연맹 전쟁이라는 정치적 열망의 신화적 상징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거니와<sup>46)</sup>,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 때문에 일어난 전쟁 덕분에 그리스인들은 노예가 되기를 면했으며, 그리스인들은 서로 화합하였으며 처음으로 유럽이 아시아에 대해서 이겼다고 말한다<sup>47)</sup> 그리고 그 결과 헬레네를 납치해갔던 이방인들의 큰 도시들과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καὶ πόλεις μεγάλας καὶ χώραν πολλὴν ἀφελέσθαι τῶν βαρβάρων)고 하면서 끝맺는다<sup>48)</sup>. 헬레네 납치 사건과 이로 인한 원정의 결과는 결국 ‘식민지 건설’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헬레네를 납치해간 아시아의 이방인들은 여기서 응징당하고, 나라와 땅을 빼앗기게 되지만,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헬레네를 납치해간 사건으로 그 영웅성을 더욱 인정받는 것으로 이야기된 점은 흥미롭다. 이소크라테스는 ‘헬레네를 사랑하고 감탄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존경받을 만하다고 하면서 테세우스의 영웅성을 강조한다<sup>49)</sup> 즉 헬레네의 아름다움과 테세우스의 영웅성은 함께 간다<sup>50)</sup>. 헤라클레스보

44) Isocrates, *Panathenaikos* 13-14 (12. 13-14)

45) Isocrates, *Helene* 40, 48-51 (10. 40, 48-51).

46) W. Jaeger, *Paideia III* (New York, 1944), p. 67.

47) Isocrates, *Helene* 67 (10. 67).

48) Isocrates, *Helene* 68 (10.68).

49) Isocrates, *Helene* 22 (10.22).

다도 더 뛰어난 영웅인 테세우스의 사랑을 받은 헬레네 역시 뛰어난 여성이 되는 것이며<sup>51)</sup>, 테세우스가 뛰어난 미모의 헬레네를 납치하였다는 이야기는 테세우스의 위대함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케네디(G. Kenedy)는 『헬레네』는 이소크라테스의 범 헬레니즘 사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테세우스가 헬레네를 얻을 만한 영웅으로 묘사된 것은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잡을 만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보았다<sup>52)</sup>. 그런데 여기서 납치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타국인들에게 납치당하였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 반드시 응징되어야 할 것이지만, 자국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권장할만하며, 자국의 위신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이오라든가 헬레네 이야기가 고전기 아테네에서도 오리엔트 정복 혹은 식민지 건설과 관련해서 거듭 언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납치나 폭력은 근본적으로 타국의 남성에 의한 내적 공간의 침입으로, 칼에 의한 침입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따라서 다른 남성의 여성을 납치한다는 것은 관련 남성의 영토, 사적 공간에 대한 침입으로 받아들여져, 확실한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른 여성을 납치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와 자랑의 상징이 될 수 있었고, 거꾸로 납치당하였 다든가, 찾는 것을 실패한 것은 패배의 표상이 되게 된다. 따라서 자국의 여성이 납치당하였으므로 이를 되찾는다는 것은 전쟁의 정당한 구실, 침략

50) Cf. Isocrates, *Helene* 21 (10.21).

51) Isocrates, *Helene* 25 (10.25).

52) G. Kenedy, "Isocrates' Encomium of Helen: A Panhellenic Document,"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89 (1958), pp. 77-83. Cf. <http://theseus2015.weebly.com/encomium-of-helen.html> 이에 대한 비판(G. Heilbrunn, "The Composition of Isocrates' Helen" (1977),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07(1977), pp. 147-159)도 있으나, 이소크라테스의 후기의 작품 *Panegyrikos*, *Panathenaikos* 등에 이런 사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미루어, 『헬레네』에도 서서히 태동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나 식민지 건설을 합리화하는 방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결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의 그리스 인 식민지 건설의 정당화는 텔포이 신탁의 명령 혹은 권고, 혹은 조상과의 혈연적 유대의 의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특히 여성 실종 혹은 납치와 연관된 담론이 고대 지중해의 식민-정복 활동의 정당성 담보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하는 점을 살펴 보았다.

이오, 에우로페, 메데이아, 헬레네 등 유과-납치-실종되었다는 전승이 내려오는 대표적 여성들은 모두 고대 식민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던 나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이들 여성들을 찾으러 떠난 이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였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즉 전쟁을 하는 데에도, 다른 나라로 진출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도, 여성 실종이나 납치 사건이 원인 제공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텔포이 신전의 허락과 중재가 그리스 세계의 식민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받을 수 있던 대표적 기제였듯이, 여성이 납치당해서 이를 찾으러 왔다는 수사 역시 식민이나 이주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제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수사는 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이던 고전기 아테네에서는 더욱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 투고일자 : 2016. 11. 30.

□ 심사완료일 : 2016. 12. 18.

□ 게재확정일자 : 2016. 12. 21.

## 〈국문초록〉

## 고대 지중해 여성 납치 담론과 식민 활동

최혜영

고대 지중해에서 방랑이나 이주, 식민 활동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이주나 식민 사례 다수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하나는 텔포이 아폴론 신의 명령 혹은 권고에 의한 것, 다른 하나는 먼 조상의 혈연적 유대에 의해 식민지 개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가끔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될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전쟁의 원인과 관련한 담론이 흔히 여성 납치 사건과 연관되어 전개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예를 들어서, 납치 혹은 실종되었던 여성 들인 이오, 에우로페, 헬레네, 메테이아(자진하여 납치 혹은 실종된 경우) 등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르고스, 페니키아, 코린토스 등, 이들 여성이 연관된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해외 진출 및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 실종 관련 담론은 고대 지중해의 해상 및 식민 활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고전기 식민 활동에 가장 앞장섰던 아테네에서 이러한 실종 납치 담론은 다시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와 소포클레스의 『탄원하는 여인들』에서 이오 이야기는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며, 특히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이오가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서 머나먼 식민지를 세우도록 정해져 있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오리엔트 원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헬레네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낸다.

그는 헬레네를 납치하였던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한 트로이아 전쟁을 극찬하며, 또 하나의 오리엔트 원정을 감행할 것을 역설한다. 요컨대 여성 납치나 폭력은 근본적으로 타국의 남성에 의한 내적 공간의 침입으로, 칼에 의한 침입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따라서 자국의 여성이 납치당하였으므로 이를 되찾는다는 것은 전쟁의 정당한 구실, 침략이나 식민지 건설을 합리화하는 방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어(Key Words)

1. 여성 납치(Abduction of Women)
2. 지중해(Mediterranean)
3. 식민(Colonization)
4. 이오, 에우로페, 메데이아, 헬레네(Io, Europe, Medea, Helen)
5. 아테네(Athens)

〈Abstract〉

## The Abduction of Women and the Colonization Movement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Region

Choi, Hae-Young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and connotation between the abduction of women (or missing women) and the colonization movement (or military expeditions) of the Ancient Mediterranean region. In Archaic times, the Delphic Oracles, or the claim of preemptive rights, were the most customary medium of colonization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In addition to this, in my opinion, declarations to regain missing or abducted women were the most frequent pretext for starting colonization and military expeditions.

Io, Europe, Medea and Helen are mythical heroines who were known to be abducted or missing and thus caused war or colonial movements. Their countries took the most active part in sea trade, commercial activity and establishing colonies before the Classical Age. In the Classical Age, the Athenians, the dominant leaders of the rising ‘Sea Empire’, repeatedly brought up the story of those such as Io and Helen. In the tragedy *Prometheus Bound*, Io was described as a pioneer, establishing colonies for herself and her descendants abroad. Isocrates also used Helen’s abduction saga to justify the Trojan War, and further urge another military expedition against the Orient, expecting lucrative colonies.

In short, the abduction of women was regarded as an attack on their countries and was used as a justification to declare war against the perpetrating nation; it was rhetorically and frequently used as the rationalization of war or as a pretext to launch a military expedition and establish colonies.



## 〈참고문헌〉

### 주요 원전

Aeschylus, *Prometheus*  
Diodoros Sikeliotis, *Bibliotheca*  
Herodotos, *Historiai*  
Homeros, *Ilias*  
Isocrates, *Hellene*  
Isocrates, *Panathenaikos*  
Pausanias, *Periegesis*  
Plutarch, *peri tis Herodotou kakoitheias*  
Pseudo-Apollodoros, *Bibliotheca*  
Strabo, *Geographia*  
Thucydides, *Historiai*  
Vergilius, *Aeneis*

### 주요 이차 사료

최혜영, 「고전기 아테네의 식민 활동과 트립톨레모스」, 『서양고전학 연구』, 55-2 (2016)  
최혜영, 「아이스킬로스, <탄원하는 여인들>의 저술 시기」, 『서양고대사연구』 32(2012)  
W. Burkert, *Greek Religion* (Cambridge, 1985)  
R. Garland, *Wandering Greeks: The Ancient Greek Diaspora from the Age of Homer to the Death of Alexander the Great* (Princeton, 2004)  
L. Giuliani & G.W. Most, “Medea in Eleusis,” *Visualizing the Tragic: Drama, Myth and Ritual in Greek art and Literature*, eds. C. Kraus 외 (Oxford, 2007), pp. 197-217.

- A.J. Graham, "The Foundation of Thasos," *The Annual of the British School at Athens* 73 (1978), pp. 61-98
- J.M. Hall, *A History of the Archaic Greek World ca. 1200-479 BCE*. (London, 2007)
- J.M Hall, *Ethnic Identity in Greek Antiquity* (Cambridge, 2000)
- N.G.L. Hammond, "An Early Inscription at Argos," *Classical Quarterly* 10, 1 (1960), pp. 33-36.
- G. Heilbrunn, "The Composition of Isocrates' Helen,"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07 (1977), pp. 147-159.
- W. Jaeger, *Paideia III* (New York, 1944)
- G. Kenedy, "Isocrates' Encomium of Helen: A Panhellenic Document,"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89 (1958), pp. 77-83.
- I. Malkin, *Religion and Colonisation in Ancient Greece* (Leiden, 1987)
- E. Meyer, *Geschichte des Altetums* (Stuttgart, 1893)
- S, Moscati, ed. *The Phoenicians* (New York, 1999)
- N. Robertson, "The Dorian Migration and Corinthian Ritual," *Classical Philology* 75, 1 (1980), pp. 1-22.
- F. de. Polignac, *Cults, Territory and the Origins of the Greek City-State* (Chicago, 1995)
- C.B. Rose,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in the Aiolian Migration," *Hesperia* 77 (2008)
- M. Wilson 외 eds. *Greek and Roman Colonization: Origins, Ideologies and Interactions* (Swansea, 2006)